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유니세프

뉴스레터  
15

#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3월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드림국악오케스트라가 제 2회 정기연주회를 펼쳤다.

## 드림국악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 전통악기가 들려주는 ‘봄’

어여쁜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 오고 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봄의 소리를 담은

특별한 연주회도 우리를 찾아왔다.

초록우산 드림국악오케스트라가 지난 3월 2일

한국소리문화전당 연지홀에서

〈꿈나무들이 들려주는 봄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연주회를 연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완주군이 주최하고 (사)전통문화마을이 주관한 드림국악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는 모두 5장의 공연으로 이뤄졌다. 1장 ‘풍요로운 전라북도의 전통을 노래하다’, 2장 ‘천년의 소리, 전라도의 소리’, 3장 ‘열정을 품다’, 4장 ‘초록의 계절’, 5장 ‘에필로그-초록미래를 꿈꾸다’이 그것이다. 특히 4장 초록의계절 무대는 **민요를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반주로 초록우산 창악부가 함께 협연**으로

꾸며 눈길을 끌었다. 또 마지막 5장은 역동적인 사물놀이

협연과 사물놀이 협연과 **웅장한 국악관현악이**

**꾸미는 사물놀이협주곡으로 초록우산 사물**

**부가 기량을 맘껏 뽐내며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완주군의 초·중학생 48명으로 이루어진 드림국악오

케스트라는 지난 2017년부터 삼우초등학교에 모여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연주회이다.



김미래(15·고산중2년)양은 “가야금을 담당하는데 음악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는데 좀 힘들었다.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깐 나아져서 기

분이 좋았다”며 “앞으로 가야금을 좀 더 전문적으로 멋있게 치고 싶

고 어디 가서 ‘나 가야금 잘 친다’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연주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강**

**성오 지휘자를 중심으로 48명의 아이들이 기악부, 창악**

**부, 사물부로 나뉘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연주**를 하며 공연을 성

공적으로 이끌었다. 채희(14·고산중1년)양은 “처음엔 엄마가 아는 프로그램이라고 추천해

줘서 국악오케스트라에 합류하게 됐다.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배우는 중인데 앞으로도 꼭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드림국악오케스트라의 연주회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 오는 2020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

이다. 연주단은 “처음으로 전통악기를 배우며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하며 우리는 많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의 전통 악기를**

**배우게 된 것 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다**”며 한 목소리를 낸

다.

국악오케스트라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2019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자연숲놀이터등 92개사업추진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본격적으로 아동·청소년 행복정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출산부터 가족까지 발달주기별 아동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아동참여 정례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모니터링 수행 등을 통해 2019년 아동·청소년정책의 도약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지난 2월14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9년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행복정책 추진사업으로 돌봄, 역량, 건강, 안전, 보호, 실행기반 6개 영역 186개 사업(약 727억)을 심의하였다. **군 자체사업으로 92개(329억)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군 단위 중 단연 최고수준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출산축하용품지원 및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건립, 자연숲 놀이터 조성사업, 아동·청소년 사회환경 조사 등 13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실무협의회 추진과 아동·학부모·관계자 등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해 아동권리교육 사업이 확대된다. 더불어 아동육구기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아동친화도 조사 및 정책워크숍을 진행하여 지역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행복정책 계획을 마련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도시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그 가치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때까지 완주군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완주군 아동·청소년 소식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아동·청소년 블로그**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NAVER**

<https://blog.naver.com/wanjucfc>

